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심리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홍미연^{1*}, 유주숙²

¹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과, ²순천보호관찰소장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rience of Mental Impaired Persons Under Probation

Mi-yeon Hong^{1*}, Joo-suk Yoo²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eonju Kijeon College

²Director of Suncheon Probation Cente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 관리방안인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명의 심리상담을 받는 대상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상담 기록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한 주제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통합 분석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상담 경험과 관련하여 17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겉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기대고 싶은 의지', '절망에서 희망으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psychological counseling of the subject of proba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as a management plan for the mentally ill.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and counseling records of 4 subjects receiv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 case study method. The analyzed result was presented as the result of thematic analysis incorporating the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integrated analysis, 17 subcategories and 5 themes were derived in relation to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rience of the subjects of probation. The five themes are 'Looking for Life', 'Fear in the eyes of the world's people', 'Hardness to handle it alone', 'Where to look forward', and 'From despair to ho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 action plan was proposed to prevent and manage the re-offenses of probation targets.

Key Words Criminal, Mental disorder, Prob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많은 질환 가운데서도 가장 인식이 좋지 않은 분야가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Mental illness)은 생물학적, 화학적, 생리학적, 유전학적, 심

리학적, 사회적, 환경적 기제들의 작용들 가운데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이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말한다[1]. 또한, 정신질환은 그 주기나 정도, 예후가 극단적으로 다양하고 특정 형태의 고통이 수반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6,980건(2015년), 8,287건(2016년), 9,027건(2017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Corresponding Author: Mi-yeon Hong(Jeonju Kijeon College)

E-mail: hmy4289@kijeon.ac.kr

Received June 02, 2022

Revised June 27, 2022

Accepted July 11, 2022

음을 알 수 있다[2]. 특히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이 85.7%로서 9범 이상이 15.7%다. 이는 비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인 45.3%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3].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은 정신장애 범죄자들 가운데에서도 전과 5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24.5%, 2017년 29.5%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4]. 이는 정신장애자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내의 의료적 처우 등으로 대처하거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수감 명령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최초 범행 때에는 단순한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5]. 위와 같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수행된 정신질환자 심리상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출소자 대상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연구[6], 수용자 및 보호관찰 대상의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7] 등 극소수에 국한되었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구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서울 모텔 투숙객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법무부는 2019년 6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검사 총 220명항을 통해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분류한 결과 37% 수준을 보였다. 2020년 6월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문 심리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보호관찰 기간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만을 분류하여 전문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 월 2회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그 경험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심리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 사례의 깊은 이해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 경험은 단순한 재범 예방 이상의 변화로 개인마다 독특한 주관적 의미와 가치에 따라 개별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가 상담 전문가에게 받는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심층 인터뷰 이외에 상담일지, 관찰일지 등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상담 경험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문헌연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치료 시작 시기는 발병으로부터 12개월 후에 이루어진다[8]. WHO 국가 평균 첫 치료 시기가 발병 후 3개월인 것에 비해 너무 늦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부분 책임을 가족이 떠안고 있지만, 선진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정신병 증상이 시작되고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기간[DUP(Duration of Untreated)]이 길어질수록 재발 가능성과 치료 예후가 좋지 않으며,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가장 흔하게 보고된다고 알려져 있다[9-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한 보호 사업이 출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를 살펴보면 출소자들의 보호 재활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부에서는 상담심리, 임상 심리, 범죄심리, 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석사급 이상의 상담사를 배치

하여 출소자와 출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가족 교육 프로그램, 집단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6],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상담 서비스를 받은 집단은 25%의 재범률을 보였으나 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집단은 64%가 재범을 하였다[11]. 한국법률보호공단[12]에서는 갱생보호 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으로 숙식 받은 5,103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했고 최대 2년의 기간에 3회까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러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행해 온 기간은 길지 않으며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있다[13].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만을 분류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에서의 출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효과성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독일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해오고 있으며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심리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참여한 그룹이 참여하지 않는 통제그룹 청소년보다 재범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지원을 다룬 질적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출소자에 국한되었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정신질환 범죄자를 일반범죄자와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 대상자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통된 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은 복잡한 현상을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왜 그러한지를 고려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중심적 연구 방법이다[16]. 사례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는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이며, 감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적인 경험들에 대한 지식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고, 맥락적인 상황이 반영된 경험적 지식을 얻도록 해준다[17-18].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2020년 6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국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모든 성인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후 심리상담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이면서 정신질환자라는 사회적 삶의 조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적으로 진행되는 성인보호 관찰대상 정신질환자가 받는 심리상담 서비스 경험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참여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총 보호관찰 기간이 2년 전후로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심리상담, 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로서 6개월 이상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때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보호관찰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였다. 아울러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Division	participa nt1	participa nt2	participa nt3	participa nt4
Age	30's	20's	30's	30's
Sex	female	male	female	male
Screening test results	high risk group	high risk group	high risk group	high risk group

Division	participa nt1	participa nt2	participa nt3	participa nt4
Probatio n cause	theft, assault	viol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special assault	viol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violat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Criminal history	8 times	6 times	1 times	1 times
Psychiatry	panic disorder	depression and suicide risk group	depression	panic disorder
Suicide accident	existence	existence	existence	existence
Job	o	o	o	o
Married	divorce	single	single	actually married
Family living together	living alone	living alone	boyfriend	mother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심층 인터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회 인터뷰에는 5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으며, 각 2회에서 3회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질문을 통해 반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심리상담을 받은 전문상담가의 심리상담기록 자료와 선별 검사지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귀납적 주제분석’을 하였다. 귀납적 주제분석은 개념이나 이론적 틀에서 코딩을 시작하지 않고 원자료로부터 코딩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귀납적 과정을 거친다[19]. 인터뷰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포괄 분석하여 주요 개요를 도출하였고, 원자료의 포괄적 이해를 통해 내용을 분석한 뒤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3.4. 연구윤리 및 엄격성

질적 자료 수집 과정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20] 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관련 취지와 연구의 목적, 인터뷰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흔쾌히 연구 참여 동의서를 친필로 받았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인터뷰한 내용은 녹음되며, 연구 참여 도중이라도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폐기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알렸다. 본 연구의 엄격성은 Lincoln[21]이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들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상담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5개의 주제 「결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기대고 싶은 의지치」, 「절망에서 희망으로」와 17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절도, 특수폭행, 전자금융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각각의 죄명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범죄자이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공통된 경험을 하였다.

[table 2] Analysis Results: Subjects and Categories

[표 2] 분석 결과: 주제와 범주

subject	Subtopic (Category)
Life in vain	Crime
	Want
	Extreme thoughts
	Persistent mental difficulties
Fear in the eyes of the world	Fear of stigma
	Conceal that you are on probation around you
Take it alone hard to do	Memories I want to erase
	Losing valuable things
	Employment restrictions
	Desperate economic hardship

subject	Subtopic (Category)
A place to lean on	As an opportunity for healing
	Got mine
	Awaiting consultation
	Counseling you want to receive after probation ends
From despair to hope	Emotional control is regulated
	Learn how to deal with recidivism
	Counseling for other criminals

4.1 결도는 삶

연구참여자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까지도 범죄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나 명확한 범죄로 알고 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졌다. Maslow[22]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제시하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의 존재이므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부정적으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범죄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한 귀퉁이에는 늘 정신과적 질병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넘겨지지 못한 경제적 사정은 사회적 고립으로 존재하게 했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은 범죄의 유혹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4.1.1 범죄

연구참여자 1은 절도 8회로서 습관적으로 범행했다. 연구참여자 3은 누군가로부터 통장만 빌려주면 거액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여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전적 유혹을 견디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 4는 필로폰 투약자로서 “대한민국에서의 마약은 당연히 범죄”라고 알고 있었지만 유독 호기심이 강해 경험해보고 싶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범죄 당시를 회상하며 뒤늦은 잘못된 선택에 후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백화점에서 00원피스를 가져올 때 저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이 탐이 나서 가져왔던 것보다 불안해서 가져왔어요(참여자 1).

범행에 쓰이는지 몰랐고 명의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빌려주었어요(참여자 3).

성적인 부분으로 약을 하면 좋다더라..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접해보고 싶었던거였는데 어느 순간 부터는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참여자 4).

4.1.2 궁핍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자로서 보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정신질환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은 아니나 외래치료를 통해 질병을 관리하면서 경제활동도 감당해내야 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자 중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범죄 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는 점은 이들의 열악한 위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살고 있고 00에 원서를 내 볼 생각이예요(참여자 1).

돈이 필요해서 비트코인 쓴다고 해서 설마 하며 통장을 빌려주었는데...저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입금해주었지만 받기로 한 돈은 받지 못했어요(참여자 2).

4.1.3 극단적 생각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원인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7.6%의 국민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23].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은 강제입원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살을 생각하였고, 연구참여자는 2와 4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늘 품고 산다.

아버지 틀 속에서 살았는데 엄마랑 싸웠다고 아버지가 날 쳐 버려서 무작정 한강물에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니(아버지) 가슴에 내가 죽음으로부터 복수하겠다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중략) 그때 막 7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뻘 죽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미쳐서 막 뛰어내리려고 했어요(참여자 1)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옥상을 올라갔는데 바닥을

보니까 엄마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차마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맨정신으로 옥상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술 먹고 올라가기도 했어요(참여자 2).

4.1.4 지속되는 정신적 어려움

연구참여자 2와 4의 만성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안전한 삶에 치명적인 질병이었지만 정신과 치료는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이유는 약물복용에 대한 부작용의 두려움과 정신과 약이라는 거부감 때문이다. 낙인 이론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낙인은 사회화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내면화되어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4]고 하였다. 그런데도 연구참여자 1과 3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눈만 감으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함(참여자1, 상담기록).

우울증을 앓은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오래되어 신체 일부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밤이 되면 낮보다 힘들어지고 그냥 살아서 뭐 해 죽어야지 라는 생각만 해요(참여자 2).

수면제 4알, 수면 유도제, 우울증(약 6년됨), 조울증약 등 총 15알을 저녁에 먹는다고 함(참여자 3, 상담기록).

내담자는 환청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심리상담과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약물치료도 받았는데 정신과 약물로 인해서 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라고 함(참여자 4, 상담기록).

4.2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것은 곧 전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하루빨리 견어내고 싶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에게조차 보호관찰 중임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싶어 했다.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보낼 수 있는 낙인의 두려움이 매우 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4.2.1 낙인의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는 수단으로 약물을 거부하며 스스로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선택하

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보호관찰소 방문은 범죄자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다.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니까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보호관찰소를 다닌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를 다닐까라는 그런 시선 때문에(참여자 4).

4.2.2 주변에 보호관찰 중임을 숨김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 중임을 숨기는 이유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참여자 지인 중 자신의 범죄를 알아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인들 때는 자유롭게 하였다.

주변에다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나를 범죄자라고 보고 전과자라고 생각을 하겠지요(참여자 1).

낮 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된 부분으로 왔는데 나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뭐 대화를 나눌 때 저를 사람 취급을 해줄까(참여자 4).

4.2.3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25]에 의하면 애착이란 부모 자녀 관계처럼 가까운 사람과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감을 획득하며 성장하게 된다. 애착에 손상을 입은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1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건강한 기억이 없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만은 부모님을 닮지 않겠다고 가슴속에 수백 번 맹세했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전철을 밟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주 양육자와 있었던 과거 기억이 모두 고통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가족 사랑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차오르는, 몸이 녹아내리는 통증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물지 않는 흉터로 파리를 틀고 있다.

엄마 아빠는 미친 듯이 싸우면서 살았어요. 저는 절대 결혼하면 우리 엄마아빠처럼 제 자식을 나같이 키우지는 않을거예요(참여자1).

부모님이 이혼 후 잠깐 아버지와 누나랑 살았는데(6·8세)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앞니를 뺨찌로 뺏아버렸어요(중략) 그냥 친아버지가 알아서 죽어 주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2).

부모님이 저 3살 때 이혼했는데 어렸을때부터 엄마가 딸 취급을 안 했어요. 보통 엄마들은 딸 걱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냥 남 같았어요(참여자 3).

4.2.3.2 소중한 것들을 잃음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을 당해 월 2회의 제한된 이외의 만남을 갖거나, 오랜 기간 사귀어왔던 애인과 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겼으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또다시 폭행하면 가중 처벌이 따른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법 앞에 순응하고 있었다.

유책배우자라서 월 2번만 00를 볼 수 있어요. 00하고 생이별이죠. 00는 엄마를 더 찾는데(연구참여자 1)

20년 7월달에 교도소에서 한 달 살고 나왔는데 5년 동안 사귄 여자 친구가 내 친구와 사귀고 있었어요.(참여자 2).

4.2.3.3 취업제한

보호관찰 기간이라 연구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한 연구참여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 내는게 고통이었다. 배달일이나 단순 서비스직, 단기 근로자 등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그마저도 만만하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몇 달 일하면 끝나요(연구참여자 1). 할 수 있는게 배달 일 말고는 없어요. (연구참여자 2). 여기는 도시라 나이가 많다고 취업이 안 돼서 시골로 가야 해요. 그래도 시골은 받아줘요(참여자 3).

4.2.3.4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

이혼이나 가족들과의 단절로 자립을 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일하실 기본적인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군대에 가기 위해 신검을 받았지만, 정신과 검사를 권유받았다. 정신과 검사를 받고자 했으나 검사비가 없었고, 연구참여자 4는 면접을 보러 가야 하지만 면접 장소까지 이동할 비용마저도 없었다.

맨 처음 신검을 받을 때 점수가 너무 높아 정신과 치료(지정병원)를 권유받아 병원을 방문했다가 검사 비용이 비싸서 그냥 돌아왔어요. (참여자 2).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손목도 아프고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요(참여자 3).

4.2.4 기대고 싶은 의지처

살아오면서 마땅히 기댈 곳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심리상담사는 자신들의 편에 선 유일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는 [26] 연구에서 교도소 수용 당시부터 심리치료와 조언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멘토들을 자신들의 처지와 괴로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여기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연구와 동일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3은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했다.

4.2.4.1 치유가 될수 있는 기회라 여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관계망은 매우 협소했다.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이 극소수였으며, 심지어 가족조차도 원만한 관계유지가 안 되고 있었다. 비록 집행 유예기간으로서 통제된 생활 속에 놓여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며 관리를 받는 자체가 재범에 대한 예방조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보호관찰이 내담자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작용하고 있었고, 심리상담사들의 정서적 지지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심리적 치유가 일어날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되게 유용했어요(참여자 1).

보호관찰이 있으니까 우-하는 타이밍에 보호관찰이 생각나요. 그래서 덜 화가 나요 엄청 화가 나더라도 제 감정을 무시하거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4.2.4.2 내편이 생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외로웠고 세상에 자신의 편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으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단 3회의 상담을 받고 종결되었던 연구참여자 3은 상담에 크나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었다. 초반 심리상담사에게 금전적 요청이 무산되며 관계 형성이 절단된 경험이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꺼내지 않게 되고 피상적인 대화로 상담이 어렵게 된다.

상담사님한테 제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다는거 제 말을 들어주고 원인까지 분석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몰랐던 거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고(참여자 1).

상담을 받기 전에는 고민이 생기면 고민이 없어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담에 선생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하면 잠이 와요(참여자 2).

상담선생님한테 제가 3만 원들 빌려달라고 했는데 규칙상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3).

4.2.4.3 기다려지는 상담

한 달에 1~2회의 상담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평균 1회 50분 내외의 상담은 다음 상담 일까지 버틸 수 있는 예방주사 같은 약이 되고 있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사는 든든한

멘토였으며 버팀목이었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외 논문에서 심리상담은 평균 6~10회기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변화가 있다는 연구결과 [27-28]와 일맥상통한다.

얘기하다가 아! 이게 문제구나! 딱 아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참여자 1).

그거를 조언을 해주시고 그니깐 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것처럼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요(참여자 4).

4.2.4.4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받고 싶은 상담

연구참여자들은 정해진 집행 유예기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행유예는 종료되기를 기다리지만, 상담은 지속해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연구참여자4는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약물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저하 시킨다고 믿고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보호관찰이 끝나도 개인적으로 상담사님한테 계속 상담을 받고 싶어요(참여자 1).

상담을 하고나면 1주일 정도는 좋은 기분으로 지낼 수 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참여자 2).

저는 보호관찰소 다니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이 바뀌는 원동력 같은 곳이죠(참여자 4).

4.2.5 절망에서 희망으로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절망적으로만 생각했던 법의 통제는 자신도 모르게 귀한 약으로 느껴졌으며, 심리상담은 자신을 읊아뒀던 삶의 군더더기들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털어낸 빈자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보고 싶다.

4.2.5.1 감정통제가 조절됨

연구참여자들은 협소하게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라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통제는 재범 억제에 기여하고 있었다. 스스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미리 조절하고 범죄

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였다.

보호관찰 기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쇼핑을 좋아하는데 쇼핑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물건에 손을 댈까봐 지금은 온라인 쇼핑만 하고 있어요(참여자1).

보이스 피싱범의 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지요(강조)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참여자 2).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많은 걱정이 되죠(참여자 4).

4.2.5.2 재범 예방에 대한 대처 방법 터득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꿈을 설계하며 범죄로부터 멀어져가며 일상적 행복을 찾고 싶어 했다.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가 희미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싶으며 중도탈락했던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향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해보려고 한다고 함(참여자 4, 상담기록)

4.2.5.3 다른 범죄자에게도 필요한 상담

연구참여자들은 기대 없이 수동적으로 받았던 심리상담이 자신에게 도움으로 느껴지자 이타심이 일었다. 범죄가 이기심(利己心)의 발로라면 이타심은 ‘남을 위한 마음’으로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대상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이타성이 적을 거라고 추론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범죄자에게도 필요한 상담이라는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상담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분들도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참여자 2).

5. 논 의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심리상담 경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를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겉도는 삶’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1은 범죄 8범으로서 범죄가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범죄라는 인식은 약하였다. 범죄는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29]. 자신이나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불안, 상실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보이며 이를 제거하려다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다고 보았다[30]. 정신장애자의 범죄 중에서 절도와 상해 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31]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정신장애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탐색되었다.

둘째,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은 정신장애 및 전과자라는 낙인이 두려웠고, 이는 치료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과 약물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며 편견에 맞서고 있었다. 비록 보호관찰소에 출석 및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보호관찰소 방문 자체는 곧 자신이 전과자라는 흔적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평소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가족 전체가 문제에 노출되거나 갈등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대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범죄도, 정신장애도 숨기고 살아야 할 두려움의 존재로 탐색되었다.

셋째,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은 범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물질, 인적 손실을 경험한다. 남편과 이혼으로 어린 자녀와 이별을 하거나 오랜 기간 사귀었던 애인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한다. 경제적 생활고는 연구참여자들 혼자서 감당하기는 지나친 삶의 무게였다. 원[32]은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출소자들은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는 출소자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협 및 비용의 증가와도 연결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과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범죄에 연루되었고 이는 연구참여자 개인만이 감당하고 처리하기에는 버거움으로 탐색되었다.

넷째, ‘기대고 싶은 의지’는 큰 기대 없이 타율적

으로 시작된 심리상담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하고자 한다. 상담자들의 조건 없는 수용과 공감적 이해는 연구참여자들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나가며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해나가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협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오며 마음 나눌 대상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자에게 심리적 어려움, 일상생활 이야기 등을 풀어내며 자신의 고민과 상처들도 풀어내었다.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4는 보호관찰 자체가 약물에 대한 욕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반 심리상담사와 관계 형성이 어려웠던 연구참여자 3은 심리상담자에게 요청한 금전적 도움이 무산되자 심리상담 자체가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보호관찰 중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정립의 중요성과 개입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절망에서 희망으로’는 범죄는 이기적인 속성을 지녔다고 하면, 이타성은 타인을 생각하는 속성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이 거듭될수록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보호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통제 불능이었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된다. 월 1~2회의 상담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예방주사 같은 약이 되어 1주일 정도는 정신적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심리상담이 도움으로 다가오자 또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담이라는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정[33]은 반성은 죄의식에 달려 있으며, 죄의식을 가져오는 도덕성은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지지그룹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효용성은 결국 심리적 지지그룹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담은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을 받기 전에는 범죄의 인식이나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미흡하였으나 상담회기가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군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의미 단위를 분석하고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7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걸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기대고 싶은 의지처’, ‘절망에서 희망으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제법 방식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성 심리상담이 아닌 추가적인 심리상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외 논문에서 심리상담 회기를 평균 6~10회기를 갖게 되면 신뢰할 만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7-28][6]. 본 연구에서는 상담 회기가 많은 연구참여자 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심리상담 초반 상담자와 관계 형성에 실패한 연구참여자 3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 효과에 대해 특별한 기대 없이 임하였으나 이들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심리상담을 이어나가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다. 따라서 보호관찰 중 심리상담이 끝난 뒤에도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 횟수와 방법은 심리상담사와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는 윤[26]의 연구에서도 교도소 수용 당시부터 심리치료와 멘토링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멘토들을 자신들의 처지와 괴로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만한 사람들로 여기고 신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상담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 1회, 50분이 기본적인 간격과 시간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와의 심리상담은 월평균 2회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 제공으로 인해 마음의 정서적 안정감을 취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 다음 상담 때까지 문제를 안고 기다리다 상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심리상담이 시

작되면 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인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래치료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정신보건법 제64조 1항에서는 국내 외래치료명령에 적용되는 정신장애인은 보호입원(제43조)이나 행정입원(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사람 중 정신병적 증상이나 입원 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34]. 연구참여자 2는 자살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도 스스로 참아내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4는 드러나 있는 공황장애와 애써 부정하고 있는 조현병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거부하더라도 이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약물 관련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넷째, 보호관찰 종료 후 사례관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Barker[35]는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여러 문제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합한 형태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접근법의 하나다.'고 정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36]. 보호관찰 제도는 시초부터 범법 행위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재적응을 쉽게 해주는 교정사회사업의 성격을 띠며 사회사업의 한 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Casework)과 결부되어 발전되어왔다. 즉 보호관찰은 그 본질상 사회복지학에서 그 내용이나 방향성, 기법을 따라야 하는 사회사업실천론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접근했다. 따라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적 개입 및 사회 복지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한다. 즉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의 명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참여자 3은 심리상담사에게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이후로 마음을 거뒀으며 이후

상담 진행이 어려웠다. 반대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며, 상담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간다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 즉 따라서 상담은 열정을 다하되 그 외의 관계는 냉정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보호관찰소에서는 내담자들의 초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내담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 대상으로 하였고,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의 독특한 심리상담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가졌다. 본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관련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2019년에 시작된 보호관찰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있는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만으로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심리상담이 진행 중인 대상자들 중에서 비교적 상담 횟수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모든 대상자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 대상자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신장애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H. Seo, "Social Welfare Glossary", Seoul: Edam Books, 2013.
- [2] Police Department, "2017 Police Statistical Yearbook", 2018.
- [3]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5 Crime Analysis", 2015.
- [4] S-J. Lee, "A review for the incorporation of mentally ill offenders into the offender management system", *Probation*, vol.19, no.1, 2019.
- [5] G-S. Lee, S-K. Jeong, J-K. Lee, and J-S. Kim, "Development of a service model for probation subjects who need mental health

- management”, *Probation*, vol.14, no.2, 2014.
- [6] D-H. Lee, S-H. Kim, E-B. Kwon and H-J. Seo,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on program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for prisoners on recidivism”,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Treatment*, vol.31, no.2, pp.503-525, 2019.
- [7] S-K. Kang and I-S. Park,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programs for reducing aggression and improving social adaptation”, *Corrective Studies*, vol.27, pp.57-78, 2005.
-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Mental Illness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msung Seoul Hospital, 2016.
- [9] J-S. Yoon and H-S. Tak, “Management status of mentally ill and crime prevention measures”, Seoul: Organized Crime Divis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3.
- [10] O-S. Lee, S-H. Park and S-J Kim, “An evaluation study of community-linked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probation subjects with mental and alcoholic disorders”, *Probation*, vol.16, no.2, 2016.
- [11] Kadish, T. E., Glaser, B. A., Calhoun, G. B. and Risler, E. A., “Counseling juvenile offenders: A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ing*, vol.19, no.2, pp.88-94, 1999.
- [12] Korea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gency, “Protection performance in 2016”, 2016.
- [13] I-H. Ba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rehabilitation protection programs to prevent recidivism of prisoners”, *Corrective Studies*, vol.60, pp.113-134, 2013.
- [14] S-Y. Yoo, “A support program for prospective prisoners and their families in Germany”, *Probation*, vol.15, no.1, pp.51-77, 2015.
- [15] Lancaster, C., Balkin, R. S., Garcia, R. and Valarezo, A., “An evidence based approach to reducing recidivism in court-referred yout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89, no.4, pp.488-492, 2011.
- [16] Baxter, P. and Jack, S.,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Stud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novice researchers”, *The qualitative report*, vol.13, no.4, pp.544-559, 2008.
- [17] Stake, B. E., “*Clinical Studies of Counting Problems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80.
- [18] G-W. Yoo, J-W. Jeong, Y-S. Kim and H-B. Kim,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Youngsa Park, 2012.
- [19] I-S. Kim, “Qualitative Methods and Analysis in Social Welfare Research”, Gyeonggi: Jipmundang, 2016.
- [20] Fortune, A. E., Reid, W. J. and Miller Jr. R. I.,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21] Lincoln, Y. S. and Guba, E. 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 [22] Maslow, A. 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 1943.
- [23] H-S. Choi, “Main contents and future tasks of the fully revised Mental Health Promotion Act”, *Korean Medical Law Society*, vol.25, no.1, pp.7-26, 2017.
- [24] M-K. Seo and J-N. Kim, “The effect of perceived stigma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mentally disabled people”, *Korean Society for Social Welfare*, vol.56, no.4, pp.173-194, 2004.
- [25] John, Bowlby, “The Bowlby-Ainsworth attachment theor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2, no.4, pp.637-638, 1979.
- [26] H-B. Yoon, and I-H. Bae, “A study on the social re-entry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offenders wearing electronic anklets”, *Probation*, vol.19, no.2, pp.147-202, 2019.
- [27] Stiles, W. B. and Snow, J. S.,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1, p.2, 1984.
- [28] Wilson, S. B., Mason, T. W. and Ewing, M. J., “Evaluating the impact of receiving university-based counseling services on student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4, no.3, pp.316–320, 1997.

- [29] Healy, W., Bronner, A. F. and Bowers, A. M.,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psychoanalysis*”, Knopf, 1930.
- [30] S–M. Moon, “A study on the probation interview experience of probation adolescents”,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Welfare Counseling Master's thesis*, 2016.
- [31] K–W. Kim, “Corrective treatment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no.35, pp.33–70, 2014.
- [32] H–W. Won, “Review of the need and regulations for enacting laws on support for persons subject to legal prot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Spring Conference*, pp.1–19, 2014.
- [33] K–M. Jeong,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on prob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12.
- [34] N–A. Kim,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nd related system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9.
- [35] Barker, R. L., “*The social work dictionary*”, silver spring, MD: NASW, 1991.
- [36] O–C. Son, “A study on the recidivism factors and measur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 of provisional termination of treatment probation”, *Korean Criminal Psychology Study*, vol.7, no.1, pp.79–104, 2011.